

부산시구·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명원)는 지난 12월 23일 수영구의회에서 12월 월례회를 진행했다. 이명원 회장(해운대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구·군 의장 10명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회의소 전역식 및 신·구임원 이취임식 참석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1월 8일 마리나 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해운대청년회의소 전역식 및 신·구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해 신·구 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했다.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청년회의소와 지난해 4월 '청년지원사업 협력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53사단 군부대에 방한물품 전달



구의회는 1월 14일 육군 53사단을 방문해 방한물품인 핫팩을 전달했다. 향토방위를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53사단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명원 의장을 비롯해 구의회 의장단이 53사단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의회는 해마다 겨울철에 각계각층에 방한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해운대소방서에 온정을 전한 바 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



구의회는 1월 1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명원 의장을 비롯한 모든 구의원이 참석해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의회의 출발을 알렸으며, 지방의회 의장 명

의의 임용장을 수여했다. 구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업무체계를 정비해왔다. 1월 1일자 직제개편을 통해 홍보정책팀을 신설하고 의정지원팀, 의사운영팀 3팀 체제로 변경했고, 의회 근무 직원을 공개 모집했다.

신년맞이 총렬사·삼절사 참배



구의회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20일 동래구 총렬사와 반송 삼절사를 참배했다. 이명원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구민의 안녕과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기원했다.

굳건한 댐도 작은 구멍에서 무너진다

5분 자유발언



장성철 의원
(반여2·3동)

아무리 굳건한 댐도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되어 거대한 구멍으로 발전하여 무너지고 파괴된다. 반여2·3동 대부분의 주민들은 우리 동네를 잘 살게 해 달라는 것과 주거환경 개선을 절박하게 요구한다. 제2의 고향인 반여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구의원으로 임하고 있지만, 문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예산 편성의 자유권은 구청장에게 있다. 구청장은 사심 없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구의회에서 감사하고 예산 심의를 한다.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며 '이건 아닌데'라고 느꼈다.

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근거한 예산 10억

원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조례를 보면 예산은 부산 시에서 시행 중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엇이 급하다고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다.

왜 그랬는지는 안다. 신시가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신시가지 인구가 가장 많으니 당연히 편성한 것이다. 그럼 인구가 적은 동네는 해운대가 아닌가?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는 당장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한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이기에 누구나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한다. 당장 신시가지 리모델링 예산 지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책이주지역이자 오래된 건물이 많은 반여·반송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시책이라면 구민들은 집행부와 공무원을 믿고 함께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조례에 분명히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편성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굳건한 댐도 작은 구멍에서 무너진다는 속담같이 알파한 양치기 소년적인 발상의 예산 편성은 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결단코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정책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집행부와 야당, 그리고 여당과 야당을 이간질하는 술책이 될 수밖에 없다.

예산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편성하기에 누구나 정책과 예산의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한다. 당장 신시가지 리모델링 예산 지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책이주지역이자 오래된 건물이 많은 반여·반송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주민이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또 시정해줄 것을 당부한다. 포퓰리즘 정치와 행정은 우리 해운대에서 물러나야 하고, 이는 결국 공직사회와 지역을 망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됨을 직시하기를 바란다.